

#### 4) 쪽물들이기

쪽물들이기, 즉 쪽물염색은 쪽의 원료를 잿물로 중화시켜 염색하게 되는데 그 농도와 온도 조건이 까다롭고 미묘하여 숙달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먼저 잿물은 짚이나 콩대, 쪽대, 메밀대 등을 태운 재를 모아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붓는다. 물이 맑아지도록 가라앉힌 다음 위에 뜬 것들은 체로 걸러 깨끗한 잿물을 만든다. 잿물의 농도는 손 끝으로 만져서 미끈미끈할 정도가 적당하며, 잿물을 항아리에 붓고 온도를 30~40℃ 정도로 데운 후 고체 상태의 쪽물 원료를 손으로 주물러서 잿물에 잘 풀어준다.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항아리를 이불이나 담요로 덮어놓는 것은 물론, 방에 불을 지펴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대로 6~7일 지나면 물 위에 수연(水煙) 같은 맑은 물빛이 도는데 이때 헛대로 짓기 시작하여 푸른색 쪽물이 일어날 때까지 저어, 그때부터 염색을 시작한다. 만일 쪽물이 잘 중화되지 않아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잿물의 농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쪽물 원료의 분량이 많으면 잿물을 약간 넣어주고 잿물의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물이나 굴껍질 가루를 넣어준다. 그래도 중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술을 한 그릇 정도 넣는다. 완전하게 중화되지 않으면 옷감을 오래 넣어두어도 착색이 되지 않는다.

처음 쪽물에 옷감을 넣으면 연하게 착색이 되는데 이때에는 옷감을 적시지 말고 쪽물을 골고루 옷감에 묻혀 착색이 되면 널어 말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두 번씩 염색하는 것을 7~10회 정도까지 계속하는데, 이는 사람에 따라 질게 염색하려면 위의 방법을 여러 번 계속해주면 된다. 염색은 쪽의 성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쪽의 성장이 좋으면 염색도 잘되고 더 좋다. 염색이 끝나면 맑은 물에 5~6시간 정도 담가서 잿물을 완전히 뺀 다음 말린다.

쪽물염색 기능인은 한광석(보성군 벌교읍 고읍리)과 한상훈(보성군 벌교읍 징광리)이 있다.

#### 참고자료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75.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출판부, 1973.
- 홍애량, 『조선의복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8.
-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18권 5호,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원, 『한국복식사대계』 2권, 1982.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22책, 1986·1991.